

지역 메아리

김제시농기센터, 농식품 가공 예비 창업농업인 교육생 모집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서상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과정을 거쳐 농업인들의 소득이 증대할 수 있도록 농식품 가공 전문인 양성 교육인 예비 창업농업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예비 창업농업인 교육은 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제품 혹은 가공식품 생산을 준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농식품 가공창업 교육을 통하여 역량 있는 가공 창업농업인 양성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8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고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식품개발 및 창업에 관심 있는 김제시 농업인이 또는 귀농·귀촌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무료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보건소, 장애인 재활교실 운영

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의한 제1분기 등록 장애인 재활교실을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9일까지 운영한다.

대상은 거동이 가능한 김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재활교실 운영에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는데 금년에도 분기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주 2회씩 9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이다.

김제시보건소에 등록된 장애인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진료 및 상담, 기초검진, 치과외사의 구강검진 및 구강교육, 초청강사에 의한 웃음치료, 레크리에이션, 전래놀이, 통합 연계 사업으로 치매, 실버, 영양, 금연, 한방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해빙기 위험시설 집중점검

완주군이 해빙기 위험시설을 집중점검을 실시해 재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19일 완주군은 지역 내 46개 공동주택 단지 및 시공 중인 3개 공사현장과 공사 중단 2개소에 대해 18년 국가안전대진단과 해빙기 안전점검을 내달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점검에서는 동절기에 얼었던 지반이 녹아 수축하는 지반 침하 건축물 및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해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시설물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을 위해 공동주택단지내 놀이시설 62개소에 대해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파손 및 주위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으뜸 완주, 행복한 가족 만들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상담·위기지원 등 전문 서비스 실시

완주군이 올 한해 '으뜸 완주, 행복한 가족 만들기'를 핵심가치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19일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양이)는 올해 돌봄과 교육, 전문상담 및 위기지원과 사례관리, 문화와 지역사회 조직 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 서비스를 펼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족과 그 구성원들이 지역사회 주체로서의 삶을 역량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가족이 균형을 이루며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합적인 가족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을 통해 행복한 가족을 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가족돌봄과 관계 영역에서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사업

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 역할 지원, 아버지 자조모임, 가족봉사단 봉사활동,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을 지원하는 부부, 가족 간 성령등 인식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및 인권감수성교육,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이종언어 부모코칭, 부모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자립지원 패키지와 다문화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자립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가족문화영역에서 다문화 가족의 조기정착을 지원한다.

방문 한국어, 자녀생활 지도,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가족 행복교육, 문화

교육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결혼이민자에게 모국방문의 기회를 제공하는 다문화가족 교환나들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지원, 학력취득을 위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등도 진행한다.

김양이 센터장은 "향후 서비스 접근성 증대, 지역특성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돌봄 공백의 사각지대 해소,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이용 시간 확대 등을 목표로 으뜸완주의 가치에 걸맞게 맞춤형 전문 가족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완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261-1033 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 설명회 열려

완주군, 활용방안 제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완주군에서 열렸다.

19일 완주군은 고산자연휴양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관에서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성공적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 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산림청, 완주군이 후원하고, (주)나무와에너지 주관으로 실시한 이 행사는 전국 지자체 및 관련기업이 초청돼 지난 1월 산림청이 고시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바이오매스의 구체적인 사례 및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행사에는 독일의 나무 보일러 전문 제조업체인 HDG사 엔지니어 슈테판 폭스씨가 초청돼 직접 제품과 관련 독일기술에 대해 설명했다.

이외 현장에는 바이오매스 전용 이동식 목재파쇄기가 배치돼 우드칩 파쇄 시연도 진행돼 큰 관심을 모았다. 우드칩의 파쇄부터 건조, 저장, 연소 및 배출가스 등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열공급 전반에 대한 견학이 이뤄졌다.



산림바이오매스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완주군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 각 시군 지자체직원, 관심기업 등 전국 각지에서 80여명이 참석해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활용의 관심을 확인시켰다.

완주군은 앞으로 산림 부산물의 에너지 이용 등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사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

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설명회가 개최된 완주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은 400kW급 우드칩보일러 1대, 200kW급 우드칩보일러 2대가 설치됐고, 총 1.8km 열매관을 매설해 고산휴양림 내 50개 숙박동과 세미나실, 식물원 등 10여개 건물에 2016년 동절기부터 연중 난방과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설연휴 귀성객 맞이 무료 차(茶) 봉사

김제시 지평선봉사대, 전통차 대접 따뜻한 지역인심 전해

김제시 지평선봉사대(회장 김정화)는 민족 고유의 설명절 연휴기간 동안 김제역을 방문하는 귀성객들에게 따뜻한 전통차와 커피 등 무료 차(茶) 봉사를 실시하였다.

김제시 지평선봉사대는 2005년부터 14년간 빠짐없이 명절 때마다 김제역에서 무료로 귀성객들에게 무료 차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을 이용해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된 김제지평선축제 홍보 등 김제시정 알리기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번 무료 차(茶) 봉사에는 지역 주민들도 김제역에서 봉사활동에 습신 동참하는 등 따뜻한 차 만큼이나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일목재 조남산 대표, 김제시 보훈회관에 탁구대 기증

김제시 교통에 거주하는 제일목재 조남산 대표는 보훈회관에 입주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탁구대를 기증하여 주위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김제시 보훈회관은 2017년 12월말 리모델링을 마친 후 7개 보훈단체가 입주 중에 있으며 3월말 입주완료 후 단체 회원들이 기증한 탁구대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기증식에 참석한 단체 회원들은 감사를 표했다.

조남산 대표는 평소 김제시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아 현재 김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와 김제시 지역사회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으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던 중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차원으로 이번 기증을 하게 되었다. 조남산 대표는 "국가를 위해 희생봉



사하신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해 애국을 실천하는데 작은 일을 한 것 일뿐이라며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보훈회관 입주단체 대표 안용규(상이군경회)회장은 "탁구대를 기증해주신 조남산대표님께 보훈단체회원을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과 꾸준한 이용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